

# 7이닝 111구 1실점 역투... 양현종, 승리는 못 챙겼다



21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프로야구 키움 히어로즈와 KIA 타이거즈의 경기에서 7회초에 1실점한 KIA 양현종이 이닝을 마치고 더그아웃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2205이닝...KBO 최다 이닝 3위  
4경기 뜨겁던 KIA 타선 침묵  
역대 최다승 단독 2위 달성은 미뤄



양현종이 KBO통산 최다 이닝 단독 3위에 올랐지만 팀은 5연승에 실패했다. KIA 타이거즈가 21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키움 히어로즈와의 시즌 6차전에서 0-1패를 기록했다. 앞선 대구 원정에서 2승을 챙긴 KIA는 키움과의 두 경기에서도 승리를 이으면서 4연승을 달렸다.

이의리가 선발로 나왔던 19일 경기에서는 KIA 타선이 요키시를 상대로 1회에 8점을 뽑아내는 폭발력을 발휘했고, 시즌 최다인 1만903명의 관중이 입장한 20일에는 소크라테스의 역전 투란으로 승리를 챙겼다. 하지만 최원태를 상대한 21일에는 3안타 빈타에 허덕이며 영봉패를 당했다.

양현종이 이날 '이닝' 기록을 만들었지만 역대 최다승 단독 2위 달성은 다음으로 미뤄졌다. 올 시즌 7번째 등판한 양현종은 1회 우익수 이우성의 좋은 수비로 첫 상대 이정후를 우익수 플라이

로 돌려세웠다. 이형종과 이원석도 외야플라이로 잡으면서 삼자범퇴.

2회 선두타자 러셀을 중견안타로 내보냈지만 박찬혁의 타석 때 이우성이 바운드 된 공을 잡아 2루로 송구해 선행주자를 잡아냈다. 이 아웃으로 양현종은 KBO리그 통산 4번째 2200이닝 기록에 이를

을 올렸다. 김태진을 헛스윙 삼진으로 잡은 양현종이 임지열에게 좌전 안타는 내줬지만, 폭투 때 2루로 향하던 임지열이 아웃되면서 실점 없이 2회가 끝났다.

양현종은 3회와 4회에도 선두타자는 내보냈지만 실점 없이 이닝을 끝냈다. 5회에는 1사에서 이지열에게 우전안타는 맞았지만 김휘집을 삼진으로 처리했고, 이정후도 땅볼로 막았다.

양현종이 6회 선두타자 이형종에게 중견안타를 내줬지만 러셀을 병살타로 돌려세우는 등 후속타는 허용하지 않았다. 그리고 7회 다시 양현종이 마운드에 올랐다.

첫 타자 박찬혁에게 볼넷을 허용했지만 김태진의 번트 타구를 직접 잡아 1루로 송구하면서 원아웃을 만들었다.

이 아웃으로 양현종은 이강철 KT 감독의 2204.2이닝 기록을 넘어 2205이닝으로 KBO 통산 최다 이닝 단독 3위에 자리했다.

하지만 기록을 세운 이닝에서 실점이 기록됐다.

임지열에게 내야안타를 허용하면서 1사 1-3루, 이지열과 8구 승부 끝에 중견안타를 맞으면서 3루 주자 박찬혁이 홈에 들어왔다.

양현종은 남은 아웃카운트 두 개까지 처리하고 마운드를 내려왔다.

이날 양현종은 111개의 공을 던지면서 올 시즌 최다 투구수를 기록했다. 직구(48개) 최고 스피드는 145km, 평균 구속은 141km를 찍었다. 양현종은 체인지업(43개·124~133km), 슬라이더(15개·122~133), 커브(5개·116~119km)도 구사했다.

양현종이 위기를 넘고 7회를 버텼지만 KIA 타선이 끝내 깨어나지 못했다.

1회 선두타자 류지혁의 볼넷과 도루 그리고 소크라테스의 중견안타로 1사 1-3루를 만들었지만 최형우와 김선빈의 방망이가 연달아 헛돌았다. 2-3회는 삼자범퇴, 4-5회에는 소크라테스와 황대인이 선두타자 안타로 나갔지만 홈에는 들어오지 못했다.

6회에는 최형우가 볼넷으로 나간 뒤 폭투로 2루까지 갔지만 더는 움직이지 못했다. 최원태가 6이닝 무실점으로 물러난 뒤 김성진-김재웅에게 4개의 삼진을 당했다. 임창민이 나온 9회 소크라테스가 유격수 포구 실책으로 나갔지만 후속타 불발로 경기는 그대로 0-1 패배로 끝났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광주FC, 안영규 선제골에도 7경기 연속 무승



광주FC의 무승 부진이 7경기까지 이어졌다. 선제골을 지키지 못한 광주는 승점 1점을 더하는데 만족했다. 광주는 지난 20일 인천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인천유나이티드와의 K리그 2023 14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1-1 무승부를 기록했다. 전반 8분 '캡틴' 안영규가 선제골을 장식했지만 후반 35분 권한진에게 골을 내주면서 무승 고리를 끊지 못했다.

'독점력' 고민 속 경기에서 나선 광주가 경기 시작 8분 만에 골을 만들었다. 주인공은 수비수 안영규였다.

코너리 상황에서 중앙으로 넘어온 공을 잡은 두현석의 슈팅이 빗맞았다. 하지만 공이 문전 왼쪽에 있던 안영규에게 향했고, 안영규가 오른발로 골망을 흔들었다. 안영규는 임신한 아내를 위한 베이비

세리머니를 선보였다.

득점 후 바로 실점 위기가 찾아왔다. 전반 10분 레르소가 원발로 밀어낸 공을 김경민이 호수비로 막아냈다.

전반 19분 광주 허울이 오른발 중거리 슈팅을 날렸지만 공은 골키퍼 이태희 품에 안겼다. 전반 25분에는 인천 진영에서 공을 뺏은 광주의 공격이 전개됐지만 루키 정지훈이 아쉬움을 삼켰다. 전반 33분에는 이순민의 슈팅이 골키퍼를 넘지 못하는 등 1-0에서 전반전이 마무리됐다.

후반 시작과 함께 광주가 연달아 코너리 상황에 몰렸지만 실점 없이 공세를 막았다. 그리고 후반 5분 광주에 기회가 왔다.

임지성이 중원에서 넘어온 공을 잡아 역습에 나섰다. 슈팅까지 시도했지만 골대를 벗어났다.

후반 9분에는 아사시가 원발로 날린 슈팅이 골키퍼에 맞았다. 이어진 코너리 상황에서 키커로 나선 아사시가 공을 띄웠고, 티모의 헤더까지 연결됐

만 공이 살짝 골대를 벗어났다.

이후 인천의 공세가 거세게 전개됐다.

후반 12분 인천 정동운이 골대 정면에서 중거리 슈팅을 날렸고, 후반 23분 프리킥 상황에서는 음포쿠가 직접 광주 골대를 겨냥했다. 골키퍼 김경민이 골대를 파고들던 공을 쳐내면서 실점을 막았다.

하지만 후반 35분 중원에서 광주 진영으로 길게 공이 올라왔고, 권한진이 원발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한편 휴식라운드를 보냈던 전남드래곤즈는 안양 원정에서 0-2패를 기록했다.

전남은 20일 안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 FC안양과의 K리그2 14라운드 경기에서 0-2로 졌다.

전반 13분 문성우에게 골을 허용한 전남은 전반 추가 시간에는 안드리고에게 두 번째 골을 내줬다. 전남은 이날 10개의 슈팅을 날리면서 5개의 유효슈팅도 기록했지만 득점에 실패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광주FC 산드로, 무면허 운전 사고 무기 출장징지

7경기 연속 무승에 빠진 광주FC에 악재가 발생했다. '브라질 특급' 산드로 (Sandro Cesar Cordovil de Lima·사진)가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무기 출장 징지 조치를 받았다.

광주는 지난 19일 산드로의 도로교통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구단 선수단 운영규정 및 프로축구 선수계약서에 따라 상벌위 징계 시까지 무기 출장 징지 조치를 했다. 해당 사안을 한국프로축구연맹에도 신고했다.

이에 따라 20일 인천유나이티드와의 원정경기 명단에서 산드로의 이름이 제외됐다.

산드로는 지난 18일 오후 2시께 광주 월드컵 경기장 인근 도로에서 국제면허증이 발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의 렌트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추돌했고, 19일 광주서부경찰에 자진 신고했다.

산드로는 지난해 12월 자국에서 운전면허증을 취득했지만, 브라질 파라주의 새로운 운전 면허 시



스텝 도입으로 인한 마이그레이션(전환) 작업으로 면허 발급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다. 산드로는 이와 관련한 정부 문서를 구단에 제출했다. 연맹도 19일 "국제면허증이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실이 확인된 산드로에 대해 K리그 공식경기 출장을 60일간 금하는 활동 징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연맹은 추후 상벌위원회를 열어 정식 징계를 할 예정이다. 산드로의 경기 출장 금지는 20일 14라운드 경기부터 적용됐다.

'활동 징지'는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K리그 가치를 훼손하는 비위 행위에 대해 단시일 내 상벌위원회 심의가 어려운 경우 대상자의 K리그 관련 활동을 60일(최대 90일까지 연장 가능)간 임시로 정지하는 조치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손흥민 EPL 100호... 토트넘 팬 선정 '올해의 골'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홋스퍼에서 활약하는 손흥민이 구단 팬들이 선정한 올해의 골 수상자로 뽑혔다.

토트넘은 21일(한국시간) 홈페이지에 구단 팬들이 뽑은 올해의 골에 손흥민이 브라이턴 앤드 호브 앨비언을 상대로 넣은 오른발 갑아차기 골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손흥민은 지난달 8일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2023 EPL 30라운드 브라이턴과의 홈 경기에서 전반 10분 선제골을 터뜨렸다. 이 골은 손흥민의 2022-2023시즌 리그 7호 골이자, 개인 통산 EPL 100골이었다.

손흥민은 왼쪽 측면에서 이반 페리시치의 패스를 받아 아크 왼쪽에서 '전매특허' 오른발 갑아차기로 골문을 열어 대기록을 달성했다.

올해의 선수로는 케인이 선정됐다. /연합뉴스

## KLPGA 두산 매치플레이

### 결승에서 박현경 꺾고 우승

성유진(23)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15번째 '매치 퀸'에 등극했다.

성유진은 21일 강원도 춘천 라테나 골프클럽(파 72·6350야드)에서 열린 KLPGA 투어 두산 매치플레이 챔피언십(총상금 9억원) 결승전에서 동갑내기 박현경에게 4홀 차로 이겼다.

지난해 6월 롯데오픈에서 데뷔 후 첫 우승의 기쁨을 누렸던 성유진은 1년이 채 가기 전에 두 번째 우승컵을 끌어안았다.

11일 뒤에 롯데 챔피언십에서 타이틀 방어에 도전하는 성유진의 발걸음도 한결 가벼워졌다.

그는 지난달 16일 LPGA 투어 롯데 챔피언십에 초청 선수로 출전해 3라운드까지 선두를 달리다가 최종라운드에서 연장전 끝에 준우승을 거뒀다.

그는 상금 2억2500만원과 대상 포인트 60점을 받았다.

이날 오전 준결승에서 이글 1개, 버디 3개로 디펜딩 챔피언 흥정민을 꺾었던 성유진은 오후에 열린 결승전에서도 쾌조의 샷과 퍼트 감각을 이어갔다.

성유진은 2번(파5), 3번(파3), 4번(파4) 홀에서 3연속 버디 퍼트를 떨어뜨려 순식간에 3홀 차로 달아났다.

특히 3, 4번 홀에서는 적히 5m는 되는 거리에서 침착하게 공을 홀컵에 넣었다.

박현경은 7번 홀(파3)에서 첫 버디를 올려 2홀 차로 추격했지만, 8번 홀(파4)에서 퍼트가 약해 2



성유진이 21일 강원 춘천 라테나CC에서 열린 '2023 두산매치플레이 챔피언십' 결승전 2번 홀에서 티샷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속 버디 기회를 놓친 것이 아쉬웠다.

이후 1홀씩 주고받은 성유진은 12번 홀(파5)과

13번 홀(파3)에서 승기를 굳혔다.

/연합뉴스